



재미한국학교협의회 | **NAKS**
The National Association for Korean Schools

4109 Tall Oak Co., Lambertville, MI 48144 • 734.856.1455 • www.naks.org

재단법인

김 구 재 단

제 3 회

『백범일지』

독서감상문 쓰기대회 응모작품



학생 성명	한글	박우빈	영어	Rubin Park
지도교사/이메일	성명	이옥순	이메일	kosoon1234@gmail.com
소속 학교	애틀랜타 한국학교			한국/한글학교
소속 협의회	동남부협의회			지역협의회
학년/생년월일	7	학년	2000	년 12 월 5 일
제목	아직 이루어지지 못한 김구의 꿈			

응모 번호

(이 난은 기입하지 마세요)

⇒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 나라가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것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그 진정한 의미로 살아가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언젠가는 조지아의 붉은 언덕 위에 예전에 노예였던 부모의 자식과 그 노예의 주인이었던 부모의 자식들이 형제처럼 식탁에 함께 둘러앉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내가 김구 책을 다 읽고 덮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른 것은 바로 마틴루터 킹 주니어의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라는 연설이었다. 내가 어떻게 백범 김구와 마틴 루터 킹을 연결시켰을가에 대한 궁금증이 떠올랐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 그는 평생을 흑인들의 인권에 대한 계몽을 펼쳐나가다 총탄에 쓰러지셨고, 우리의 김구 선생님도 평생을 그분의 소원이었던 대한민국의 완전한 독립과 자주를 외치다 역시 총에 맞아 돌아가신 분이셨다. 단지 그것 뿐이었을까? 내가 그 두분을 동일시 하며 떠올려진게 단순히 두분 다 총에 맞아 돌아가셨다는 점뿐이었을까? 아니다. 내가 두 분을 함께 떠올릴 수 있었던 것은 그 분들의 사람에 대한 사랑과 계몽이 총을 맞아 돌아가시면서 끝나지 않고, 오늘까지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전해지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김구 선생님이 일제 강점기때의 영웅으로 남고, 지금까지도 훌륭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는 이유는 단지 하나뿐인 것 같다. 바로 가슴에서 활활 타오르는 애국심과 흔들림 없는 민족을 위한 사랑이다. 김구가 태어났을 때, 일본과 중국등 많은 나라들이 한국을 집어 삼키려 하고 있을 때였다. 또, 상민으로 태어나 많은 차별을 받으면서 자라게 되었다. 이런 상황이 김구의 나라를 위한 사랑을 키운 것 같다. 이런 자극을 받아서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처럼 자라지 않고, 어렸을 때부터 세상이 어떤 곳인지 알면서 성숙해졌다.

자신을 위한 소원이 아니라, 자신의 민족, 자신의 나라를 위한 소원... 아주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만 자기를 위한 소원보다 나라를 위한 소원을 더 이루어지기를 바랄수 있을 것이다. 김구 선생님은 자기 자식인 인이 폐병에 걸렸을 때, 그를 살릴 수 있는 약을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자기가 모든 사람한테 다 사줄 수 없는 약을 자기 아들이라고 특별히 줄 수는 없다고 하셨다. 아들, 그리고 아들 중에서도 장남의 희생을 보면서 까지 나라를 위한 소원을 이루려 하셨던 백범 김구... 우리 민족을 자신의 아들만큼이나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신 분이셨다. 부모에게 자식이란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고 제일 사랑하는 존재이다. 아들이 제일 소중하다 생각하셨으면 백범 김구 선생님은 인에게 약을 사주셨을 것이다. 그러나, 김구 선생님은 이렇게 사랑하는 아들만큼 우리

민족 모두를 소중히 여기셨기 때문에 인이 죽는 것을 볼수 밖에 없으셨다. 가슴이 아플 정도로 나라와 겨레를 사랑하신 분이셨다.

김구 선생님은 일생동안 우리 민족을 교육하시는 데에도 많은 노력을 하셨다. 그는 감옥에 잡혀 있을 때에도 감옥에 있는 죄수들에게 글을 가르쳤고, 중국에 있을 때도 광복군을 양성하였다. 김구(그당시 김창수) 선생님이 감옥에 계실당시 인천 감옥은 학교가 되었다...라는 신문기사가 났었다는 부분을 읽었을 때 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을 받았다. 김 구 선생님은 양반만이 교육을 받았던 그시절에 벌써 평등한 교육의 중요함을 깨닫고 몸소 실천하신것이다. 자신의 깨달음을 실천하는 그 모습이 내 머리 속에 떠오르면서 김 구 선생님이 그 어떤 멋진 배우보다도 더 멋지게 느껴졌다. 당시 양반이 아닌 사람들은 교육을 받기 어려웠다. 일단은 농사를 짓고 일을 하여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해서, 많은 국민들은 교육을 중요시 안 생각했다. 그래서 일본이 우리 나라를 삼키려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잘 모르는 국민도 많았다. 김구 선생님은 그들을 일깨워서 애국심을 키우려 하신 것이였다. 백범 김구가 교육을 중요시 여긴 것은 지금까지도 한국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삼성과 현대처럼 큰 회사들도 한국에서 생기고, 오바마 대통령이 교육적인 면에서는 한국을 닮고 싶다고 말할 정도로 많은 발전을 하고 세계에서 인정을 받고 있다. 우리 한국인들이 일본에 대해 교육을 못 받고 독립을 못 했다면, 지금의 우리 고국은 없을 것이다.

김구 선생님은 임시정부에서 독립운동도 아주 많이 하셨다.이봉창과 윤봉길의사도 뜻한일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셨고, 쓰레기를 뒤져서 겨우겨우 먹던 시절도 견뎌야 했지만, 한 번도 포기하시지 않고, 자신의 손으로 대한민국을 되찾는 일에 온 힘을 다 쏟으셨다. 참으로 의지가 강한 분이셨다. 자기 자신을 위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 무엇을 그렇게 열심히 하시다니,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할 점이다. 김구 선생님이 군대를 양성하고 일본을 우리 나라에서 몰아 낼 계획을 하실때, 일본이 2차 세계 전쟁에서 항복을 하고, 한국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이 소식을 듣고 한국의 국민들은 기쁨의 함성을 지르고 있을 때, 백범 김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한국인들의 손으로 독립을 이루려던 꿈이 미국이 일본에 핵폭탄을 떨어뜨려 그 기회를 잃게 되었다. 김구가 스치다를 죽였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노력이 다 핵폭탄과 함께 터져, 아무 의미가 없어졌다. 많은 일을 해 놓고서, 그 일이 다 쓸모없어졌다는 느낌, 세상에서 제일 가슴 아픈 느낌이다. 또, 소련과 미국이 각각 북한과 남한에 들어와서 조종하고 있을 때, 백범은 한 단계 더 슬퍼지셨다. 백범은 숨을 거둘 때 까지 하나의 통일된 대한민국을 만드려 했지만, 안타깝게도, 그 꿈을 이루지 못 한 채 총에 맞아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나라를 위해 그렇게 많은 일을 해 주신 김구 선생님이 일본인도 아니고 미국인도 아닌

같은 한국인 때문에 돌아가시게 되다니, 내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다. 자기 욕심 때문에 어떻게 그런 훌륭한 분을 암살할 수 있을까? 나에게 제일 많은 충격을 전달한 부분이었다. 김구 선생님이 암살이 안되셨다면, 지금의 한국은 어떻게 달랐을까? 백범의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지금의 북한과 남한이 아닌, 하나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혁명가 김구를 잃었을지도 모르지만, 우리 가슴 속에 김구 선생님의 정신이 살아 있는 한 우리는 사상가이고 계몽가인 김구를 잃지는 않을 것이다. 그는 실패한 혁명가가 아니라 완성되어지지 않은 대한민국의 완전한 독립과 자주를 꿈꾸며 아직도 그 일을 완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속에 언제까지나 살아 계실 것이다.

내가 그 분의 뜻을 이어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나는 이제부터 마틴루터 킹이 연설에서 말했듯이 각자의 있는 곳에서 희망을 버리지 않고, 이루려는 소망을 주위에 전파하면 언젠가는 상황이 바뀔 것이라고 믿어야 할 것이다. 지금 미국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마틴 루터 킹의 정신을 이어 받아 미국의 첫 흑인 대통령으로서 세계 평화와 미국의 안정을 위해 노력을 하고 계신다. 아직도 인종차별이 완전히 소멸되지는 않았지만, 계속 차별이 없는 세계로 변하고 있는 것, 그리고 사람들이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에 따라 평가받는 나라가 되어가는 것... 아마도 이것이 김구 선생님이 우리에게, 또한 나에게 바라는 신념일 것이다. 내가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우리 부모님의 모국, 미국에서 자라나는 우리 한국인 2세들의 모국, 한국을 잊어 버리면 안 된다는 점을 기억하게 되었다. 김구가 꿈꾸던 문화가 높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선 많은 사람들에게 김구 선생님 같은 분이 계셨다는 것을 알리고 싶다. 그리고 사람들이 혹시 나에게 김구선생님이 꿈꾸던 나라는 어떤 거야? 라고 묻는다면

“... 내가 원하는 우리 민족의 사업은 결코 세계를 무력으로 정복하거나 경제력으로 지배하려는 것이 아니다. 오직 사랑의 문화, 평화의 문화로 우리 스스로 잘 살고 인류 전체가 의롭게, 즐겁게 살도록 하는 일을 하자는것이다.”

라는 김구 선생님의 소원을 꼭 알려주고 싶다.

다음에 한국을 방문하게 된다면 용산에 있다는 백범 기념관에 가서 내게 진정한 애국심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고. 우리 어머니의 나라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해주신 백범선생님께 꽃을 한송이 올리고 싶다.